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정진희(서울대)

1. '이야기'의 매체적 확장
2. '설문대할망' 소재 스토리텔링의 실제
2.1. '제주돌문화공원'의 스토리텔링
2.2. 표선리 '하늘 연못'의 당신화
3. 구비설화의 해체와 재구성 방법
3.1.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결합
3.2. 신화적 성격의 강화
3.3. 단편적 삽화의 체계화
4. '설문대할망'의 현재적 의의
5. 마무리

1. '이야기'의 매체적 확장

주지하다시피 구비 설화는 '이야기'가 '말'이라는 표현수단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매체의 발달과 전통적 이야기 전승 공간의 변동과 함께, '이야기'는 구비 설화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도 활발히 창작되고 향유되고 있다. 특정하게 배치된 공간이나 이벤트의 체험, 영상이나 이미지의 연쇄 등에서도 '이야기'는 존재하는 것이다.

다양한 매체로 표현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일컫는 용어로 최근 '스토리텔링'¹⁾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이야기'의 존재 양상이 다양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은 '이야기'의 지속과 변천, 확대

1) 여기서 '스토리텔링'이란, '생산자에 의해 창작되거나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수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효과적인 담화형식으로 가공하는 것'(김의숙·이창식 공저,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64면)을 뜻한다.

를 구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는 ‘이야기’를 범주화·대상화함으로써, ‘말’이 아닌 다른 매체로 구현되는 ‘이야기’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문화콘텐츠’의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구비 설화가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구비 설화가 여러 매체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가 하는 현재적 양상을 살피는 현실적 목적을 위해서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유효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제주도에서 전승되어 온 ‘설문대할망’ 설화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의미로 향유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구비전승되는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설문대할망’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논의의 대상을 넓혀 보고자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전국체전의 심볼 등으로 구현되는 등 문화 콘텐츠로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설화인데, 최근에는 ‘돌문화공원’이라는 테마 공원의 출현으로 그 양상이 더욱 다양해졌다. 여기에서는 특히 ‘돌문화공원’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언어 텍스트를 포괄하여 현재적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살피고, 구비 설화와의 관련 속에서 그 특징적 면모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설문대할망’ 소재 스토리텔링의 실제

2.1. ‘제주돌문화공원’의 스토리텔링

2.1.1.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람 제1코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돌문화공원’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제주도의 돌문화를 테마로 하여 조성된 자연 박물관이다. 3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제주도 자연 원시림에 조성되어 생태 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006년 개원 당시에는 돌 박물관, 야외 돌문화 전시관, 재현된 제주 전통 초가 등이 전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기타 조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그 핵심 테마로 제주도에 전해지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전설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원 입구에서부터 돌박물관에 이르는 관람 제1코스는 관람객이 전시물을 체험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돌문화공원의 핵심 테마가 구현된다. 전시물과 공간의 배치를 확인하면서, 그 ‘스토리텔링’에 접근해 보자.



<사진1> 전설의 통로

<사진1>은 공원 출입구를 지나 19계단을 지나면 바로 만나게 되는 거석군(巨石群)으로, ‘전설의 통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웅장한 돌 사이를 지나가면서 관람객은 일상의 시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즉 바로 다음의 전시물이 제시해 줄 ‘전해지는 이야기’의 세계에 접어들게 된다. 가공되지 않은 원시적 거석 사이를 지나가는 관람객은 다음에 전개될 공간의 원시성을 예감하게 된다.

‘전설의 통로’를 지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된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은 완만한 원추 모양의 돌탑이다. 9기의 돌탑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의미로 쌓은 것인데, 바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위로하는 위령탑이라고 한다.



<사진 2>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위령탑



<사진3> 물장오리 재현 연못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위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돌탑 좌우의 전시물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 돌탑 무리 왼편으로 눈을 돌리면 ‘물장오리’를 재현한 연못이 있다. ‘물장오리’는 키가 컸다고 하는 ‘설문대할망’이 자기의 키를 시험하느라 들어갔다, 밭이 없는 연못인지라 나오지 못하고 빠져 죽고 말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못이다. 한편 돌탑군 오른쪽에는 ‘전설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연못 하나가 더 있다. ‘죽술’을 상징하는 연못이라고 한다. ‘설문대할망’은 오백 명의 아들들이 먹을 죽을 쑤다가 죽술에 빠져서 죽고 말았는데, 집에 돌아온 아들들은 그것도 모르고 죽을 퍼먹었다. 마지막 남은 죽을 먹으려던 막내아들은 죽술 바닥에 남은 뼈를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고, 절망한 나머지 바닷가에 가서 돌이 되

었다. 다른 아들들 역시 돌이 되고 말았는데, 한라산 영실 기암이 곧 그들 이라고 한다. 요컨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위로하는 탑을 세운 것은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고, 그 죽음의 내용이 ‘물장오리’와 ‘죽술’을 통해 제시된다고 할 수 있겠다.

돌탑과 연못을 통해 ‘설문대할망’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체험하게 된 관람객은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나 있는 통로를 지나게 된다. 이 통로는 이야기 세계로의 입구가 되었던 ‘전설의 통로’와 일종의 대구를 이루며 이야기 세계에서 나오는 출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시림 통로가 끝나면 시야가 확 트인 공간이 나타난다. 멀리 정면에 돌 박물관 야외무대가 보이고, 그 아래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인다. 무엇보다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돌 박물관 옥상에 조성된 ‘하늘 연못’이다.²⁾



<사진4> 하늘 연못

커다란 원형 옥상에 넘칠 듯 말 듯 물이 가득 차 있는 ‘하늘 연못’은 원시림 통로를 지나면서 ‘이야기’를 음미한 관람객에게 그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금 짚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늘 연못’은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고 하는 ‘물장오리’와 ‘죽술’을 의미하는바, ‘하늘 연못’에 가득 차 있는 물은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은 물(또는 죽)을 연상시킨다. ‘하늘 연못’을 통해 앞서

2) 원시림이 끝나는 출구에 서면 관람객을 압도하는 돌박물관 건축물이 들어서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원시림 출구에 선 관람객의 시선에서 보면, 돌박물관은 관람객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야외무대와 관람객 사이 공간의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 옥상에 마련된 ‘하늘 연못’은 관람객과 같은 지면 위에 자리하게 되는 셈이다.

체험했던 이야기에서 ‘빠져 죽은’ 인물, 즉 ‘설문대할망’이 부각되는 것이다.

‘하늘 연못’은 다른 한편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³⁾ ‘설문대할망’의 죽음과 관련되는 연못이나 죽술이 백록담과 연관되면서, ‘설문대할망’과 한라산이 연결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설문대할망’과 한라산의 관련성은 할망의 아들들이 한라산의 영실 기암, 즉 ‘오백 장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그것이 다시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설문대할망제’의 ‘설문대할망’

2006년 자체적으로 ‘설문대할망제’를 지낸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다음 해인 2007년부터 ‘설문대할망’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공식적으로 ‘설문대할망제’를 고안, 거행해왔다. 그런데 2008년 ‘설문대할망제’에서 등장한 고유문(告由文)을 비롯하여, 같은 해 문무병에 의해 창작된 <설문대할망제 본풀이> 등을 보면 이러한 제의를 통해 ‘설문대할망’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가 파악된다. 요컨대, 제의와 관련되는 언술 형태로 ‘설문대할망’에 대한 ‘스토리’가 ‘텔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설문대할망제’ 고유문의 일부이다.⁴⁾

(…)

저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탐라의 어머니산인 한라산을

설문대할망 당신이 치마로 흙을 날라 만드셨습니다.

이때 흘린 흙들이 오름이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 옵니다.

3)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관람코스 안내도 http://jejustonepark.com/jejustonepark/html/sub02/su_b01_01.htm#

4) ‘설문대할망제 고유문’은 송상일이 지은 것이다. 2009년 제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고유문이 낭독되었다.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 편, 『2008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설문대할망제』, 2008, 10-11면에 전편이 수록되어 있다.

산을 만드신 분이니 산보다 훨씬 더 크셨을 것입니다.

과연 설문대할망께서는

한 발로는 한라산을 딛고 다른 발로는 산방산을 딛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할 만큼 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문대할망께서는 창조의 어머니이자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밑줄 필자)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의 크나큰 사랑을 담기 위해

당신의 몸은 그렇게 커져야 했을 것입니다.

설문대할망께서는 아들들에게 먹이려고

쭈뼛 죽순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죽을 나눠 먹은 오백 명의 아들들은

슬픔을 못 이겨 결국 탐라를 지키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한라산보다 더 큰 사랑이 죽처럼 펼칠 끓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만고의 돌탑으로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

이 고유문에서 ‘설문대할망’의 형상은 인용문의 밑줄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설문대할망’은 ‘창조의 어머니’이자, ‘사랑의 어머니’인 것이다.

밑줄 부분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설문대할망’의 ‘창조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그려낸다. ‘설문대할망’은 치마로 흙을 날라 한라산을 만든 인물이다. 한라산은 ‘탐라의 어머니산’인바, 그것을 만든 ‘설문대할망’ 역시 ‘地母’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오름들 역시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 때 부수적으로 생긴 것이라 할 때, 제주 전역의 대지와 관련되는 ‘地母’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한편 ‘창조의 어머니’는 ‘거인’이라는 형상으로도 구체화된다. ‘설문대할망’은 ‘한 발로는 한라산을 딛고 다른 발로는 산방산을 딛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할 만큼’ 큰 분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산을 만드신 분이니 산보다 훨씬 더 크셨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에서 ‘거인’ 모티프는 ‘설문대할망’의 ‘창조’ 행위에서 파생된 형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두자.

‘설문대할망’은 ‘창조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창조’와 더불어 ‘사랑’이 ‘설문대할망’이 지니는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에, 몸이 큰 ‘설문대할망’은 사랑도 그만큼 크다. 설문대할망이 ‘거인’인 것은 ‘크나큰 사랑을 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설문대할망이 그 아들들에게 먹일 죽(粥)이 되었다는 것에서, ‘설문대할망’의 ‘한라산보다 더 큰 사랑’이 확인된다.

요컨대 ‘설문대할망’은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고 자신을 바쳐 자식들을 사랑한 ‘창조와 사랑의 어머니’이다. ‘창조’와 ‘사랑’은 ‘설문대할망’이 ‘거인’이었음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즉, ‘창조의 어머니-거인이었던 어머니-큰 몸에 깃든 큰 사랑-사랑의 어머니’ 순의 의미 연쇄가 ‘설문대할망’에 대한 위 고유문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무병 작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말해지고 있을까? <설문대할망제 본풀이>는 거의 5,500자에 가까운 적지 않은 분량이어서 지면의 한계 상 전문을 소개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요 화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⁵⁾

- (가) 저승왕(대별왕)이 떨어뜨린 해와 달이 바다 위에 떠서 흐르다가 제주 섬이 되었다.
- (나) 천지가 만들어진 후 할머니가 탄생하여 한라산을 만들고 한라산신 오백장군을 낳았다.
- (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마고 하는데, 명주 한 통이 모자라 옷이 완성되지 못하자 다리도 놓이지 못했다.

5) 원문은 위의 책, 14-24면 참조.

- (라) 할머니는 자신의 키를 자랑하여 한라산 물장오리 물에 들어갔다 빠져 죽고 말았다.
- (마) 할머니는 자신이 낳은 오백 장군들을 위한 죽을 쑤다가 빠져 죽고, 아들들도 통곡하다가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 (바) 설문대할망은 죽어서 표선리 한모살 당캐 세명주 할망(어부와 해녀를 지켜주는 堂神)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설문대할망’은 먼저 ‘창조’의 주체로서 형상화된다. 그런데 제주도의 토착적 의례에서 구연되는 신화인 본풀이 중에는 창조신화로 분류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존재한다. <베포도업침>이나 <천지왕본풀이>라고 알려진 본풀이들이 곧 그것이다. ‘설문대할망’의 창조와 의례에서 구연되는 신화에서의 창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에서는 저승의 대별왕과 이승의 소별왕이 ‘인간 세상을 만든 그 이후에도 아직 제주도는 완성된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설문대할망’에 의한 창조와 의례에서 구연되는 신화에서 이야기되는 창조를 시간적 흐름 위에서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공존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의문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제주 섬을 창조한 인물로 간략하게 제시되는 반면,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비롯하여 바람과 안개, 샘물, 바다의 여러 산물을 낳은 인물로 구체화된다.⁶⁾ 제주 섬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여러 모습은 ‘설문대할망’의 창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설문대할망’은 창조의 ‘어머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여신’⁷⁾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6) (...)할머니가 눈을 뜨면 아침이 오고/할머니가 눈을 감으면 밤이 되니/(...) 할머니가 숨을 쉬면 바람이 일고/ 할머니의 입김으로 안개를 만들었다./탐라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발을 깔았다/할머니의 털은 풀과 나무라 하며/ 할머니의 고래굴 같은 거대한 음문이 열리며(...) 온갖 해초와 문어, 전복, 소라, 물고기들이/거기서 나와 바다를 풍성하게 하였으니/그때부터 물결하는 잠녀가 생겼다 한다/(...)할머니의 한 치마폭의 흙으로 한라산을 이루고/치맛자락 터진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 모아져/여기저기 오망조망 오름들이 생겨났다 한다./설문대할망/천지를 창조하신 설문대할망이/한라산을 만들고 오백장군을 낳던/할머니는 몸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다/(...)

7) 창조의 여신/죽지 않고 살아서/늘 탐라백성들을 지켜주는/너무나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할망이/(...)

(다)는 다리를 놓아주마던 ‘설문대할망’의 약속이 명주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전하는 단락이다. 단편적 에피소드 위주로 이루어진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그나마 서사성이 간취되는 유형이 예의 ‘연륙교(連陸橋)’ 이야기인데, 구비 전승되는 <설문대할망>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에 포함된 듯하다. ‘할머니는 육지까지 다리 놓는 걸 포기해버렸고, 그때부터 제주는 물로 막힌 섬이 되어버렸다’는 표현으로 보아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 역시 ‘설문대할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암시되는 듯하나, 이 삽화가 의미하는 바가 작품의 문면에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흥미로운 부분은 ‘설문대할망’의 죽음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하는 (라)와 (마)이다.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도 하고 아들들을 위해 죽을 꿇다가 죽술에 빠져 죽었다고도 하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에서는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을 ‘오만한 자신을(...)물통에 빠뜨려 매정하게 수장시켜 밀도 끝도 없는 심연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물장오리’에 잠긴 이야기를 ‘영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한라산 속, 영실에 살아 오백장군과 함께 한라산신이 되었다’고 말한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이며 한라산의 바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죽음’이 아니라 ‘한라산신’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삽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술에 빠져 죽었다는 삽화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설문대할망제본풀이>에서 ‘죽술’은 ‘백록담 죽술’이다.⁸⁾ 할망이 이 백록담 죽술에 빠져죽음으로써 할망의 아들들은 영실(靈室)에 자리한 499명의 장군이 된다.⁹⁾ 그러나 여기에서의 죽음 역시 ‘설문대할망’의 소실을 의미하지는

8) (...)백록담에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때어/술전 위를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설문대할망이 빠져죽은 죽술을 백록담에 증첩시키는 것은 돌문화공원의 ‘하늘 연못’의 경우와 같다.

9) (...)동생은 통탄하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한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그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여기저기 늘어서서 한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그러니 영실에는 499장군이 있고/차귀섬에 막내 동생 하나 외롭게 서 있다./오백장군이 흘린 눈물은 이듬해 산철쭉으로 피어나/영실과 한라산을 붉게 물들였다(...)

않는다. 이는 곧, 한라산신이었던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지키’는 역할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한라산신으로는 죽은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에서 내려와 당신으로 좌정한다. (라)와 (마) 다음에 이어지는 (바)는, 백록담 죽술에 빠져 죽이 된 설문대할망이 죽지 않고 표선리 당캐의 당신, 즉 ‘세명주 할망’이 되었음을 서술한다.

(…)

또 설문대할망은 죽어서
저 표선리 한모살 당캐 세명주 할망이라는
어부와 해녀를 지켜주는 당신이 되었다고 한다.

(…)

할머니는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오백장군들에게 한라산을 지키라하고
지리서를 들고 좌정처를 찾아 한라산을 내려왔다.
앉아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신통력을 지닌 세명주할망이 지리서를 내다보니
표선면 당캐가 좌정할만 하였다.

(…)

잠녀들을 거부자로 만들어주는
당캐 어부와 해녀를 차지한 신이 되었다.

(…)

단적으로 말하자면 <설문대할망제 본풀이>는 ‘설문대할망’이라는 ‘신격’의 변천사에 대한 노래이다. ‘설문대할망’은 거인 창조여신이었다가 물장오리에 빠져 한라산신으로 변하였고, 백록담 죽술에 빠짐으로써 아들들에게 한라산을 맡기고 당신이 된다. ‘설문대할망’이라는 신격의 근본을 풀어내는 <설문대할망제 본풀이>는 ‘설문대할망’이라는 신격의 본풀이, 즉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은 단순한 전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제주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신격이다. 즉, <설문대할망제 본

풀이>는 ‘설문대할망’의 신격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스토리텔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2. 표선리 ‘당개할망’의 당신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설문대할망’이 의례의 주인공인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하다.¹⁰⁾ 그런데 최근 ‘설문대할망’이 당신으로 좌정해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당개할망(밑줄 필자)은 아들이 일곱 성제우다. 당개할마님이 저바당한집과 부배간인디, 옛날 옛적 할로영산에서 솟아나 귀신이 아닌 생인으로 한 가달은 성산면에 걸치고, 한 가달은 한라산 꼭대기에 걸쳐놓아 연서답을 하는데, 맹지 아흔아홉 동 폐와 속옷을 만들었는데 강알을 가릴 한 통이 모자라 물맹주 한통을 당하면 부산, 목포더레 다릴 노켄허난 그 땐 인간에 맹주가 어디십니까. 우리 인간에 그 때 맹주가 *개 어시난, 우리 죽으른 죽어도 맹주 흔 필 내놓을 수 엇덴허난 부산과 목포 물막은 섬이 되어비였주. 그때는 천지개화기우다. 아들이 일곱성젠디 다섯 성제는 할로영산 오백장군 오백 선생 거두잡고, 아들 험나는 할망이 그 때 시절에 가매에 물앗전 죽을 썬헨 헨 간 오란 보난 죽은아덜이 죽을 썬다가 죽에 빠전 죽어 부렸어. 게난 죽은아덜은 너무 부정 이 만만허다. 너는 애 돌르고 목이 탈테니 소섬을 츠지허라. 할망이 파쳐시커도, 다섯 성제가 할로영산 오백장군 오백 선생 거두잡으난 수덕이 좋은 겁주. **여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밑줄 필자)이 날라다 쌓은 거.**(강조 필자) 아들을 보내고 뒷녘날 아척은 좌정처를 좇아 산터 보듯 돌아보난에 그 디(당개)가 앓아 좋덴허난 좌정허여, 나고 드는 상선 중선 만민자손 천석궁 만석궁 공자 맹자 다 거두잡고 즘너들랑 거부케 흐는 할머님, ...^(후략)¹¹⁾

10)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국문학보』10,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90에서 설문대할망이 의례에 등장했었다는 증언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11) 표선리원로회, 『表善里郷土誌』, 1996, 154-155면. 조현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설문대할망 신화 재조명』(2009년 5월 16일 제주돌문화공원 주최 <탐라에서 신화를 말하다> 세미나 자료집)31면에서 재인용. 매인심방인 흥두반 심방의 제보라고 하는 위 인용문은 의례에서 구연되는 본풀이를 그대로 채록한 것이

위 인용문에 따르면 당신인 ‘당개 할망’이 곧 ‘설맹디할망’이라고 한다. ‘설맹디할망’은 음가의 유사성으로 보나 관련 삽화로 보나 ‘설문대할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설문대할망’이 ‘당개할망’으로 좌정하는 과정은 여타 당신이 특정 신당에 좌정하는 전형적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격이 좌정처를 찾아 내려와 좋은 자리에 좌정하여 만민을 보살피주는 당신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설문대할망’에 대한 삽화가 추가되면서 ‘당개할망’이 ‘설문대할망’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설문대할망’에 대한 어떤 삽화가 추가되어 있는가 하는 점인데, 먼저 예의 ‘연륙교’ 삽화가 덧붙여 있고, 죽술에 빠져 죽은 삽화가 덧붙여 있기는 하나 죽술에 빠져 죽은 이가 ‘설문대할망’이 아니라 그 아들로 제시되어 있다. 제주도 당신화에서는 서로 다른 당의 당신이 부모-자식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아들과 죽술 삽화는 ‘할로영산(한라 영산)’과 ‘소섬(牛島)’를 차지한 신격과 당개에 좌정한 신격과의 관계를 모자 관계로 설정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설문대할망’이 의례를 통해 당신으로 제향되어 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위의 자료는 일반적인 당신의 좌정 유래담에 속하는 ‘당개할망’의 이야기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설화가 포함되면서 ‘당개할망’이 곧 ‘설문대할망’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 아닐까?¹²⁾

일찍이 임석재 선생은 표선리에서 ‘설문대할망’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는 사례를 채록한 바 있는데,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옛날 설맹디라는 키가 펍 장대한 할망이 있었는데 이 할망은 어찌나 키가

아니라 메인심방이 당신인 ‘하늘 연못’에 대한 유래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12) 예컨대 조현철은 위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탐라의 창조신화, 당신화, 오백장군·소섬 유래 전설 등의 화소들이 뒤섞여 재구성된 자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소견을 덧붙이고 있다(조현철, 위의 글, 31-32면 참조). 위의 당신화를 현재적 스토리텔링의 하나로 다루는 본고의 시각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다.

크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서 한 발은 바다에 넣어서 물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이 할망이 어느날 표선에 와서 속옷 한 벌 만들어주면 이 앞 깊은 바다를 없애고 육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선 사람들은 옷감을 모으고 짤 수 있는대로 짠데 아흔 아홉 필밖에는 못 모았습니다. 설맹디 할망 속옷을 만들라민 백필이 드는디 한 필이 모자라서 앞자락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설맹디 할망은 맘에 차지 않았지만 표선 사람 성의가 고마워서 깊고 깊은 표선 앞바다를 메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표선 앞바다는 하얀 모래사장이 되어 있었는데 집집마다 톱이란 톱은 모두 날이 무디어져 있고 또 집집의 소와 말 등가죽이 벗겨져 있고 지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었습니다. 설맹디 할망은 밤새에 집집의 톱을 모두 걷어다가 한라산 나무를 베고 쇠와 말로 낱을 날라다가 깊은 바닷을 메우고 그 우에 흙을 덮었는데 흙이 모자라서 흰 모래로 덮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풍년이 심해서 과도가 일민 낭조각이 솟아나오고 낭조각이 솟아나오민 이 고장은 승년이 듭니다. 설맹디 할망이 바닷을 메는디 많은 흙을 날랐는데 그 흙이 흘러서 쌓인 것이 표선 서쪽에 있는 매봉산이라고 합니다.(1964년 7월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오윤범)¹³⁾

앞서 본 ‘당캐할망’ 신화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여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거’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설화이다. 옷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표선 모래밭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륙교’ 삽화와 연결되는 한편 마을의 특정 지형이나 자연물을 ‘설문대할망’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창조 유형 삽화와도 연결된다. 표선 백사장 유래담으로서 ‘설문대할망’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해안에 위치한 해신당신인 ‘당캐할망’과 ‘설문대할망’이 중첩되고, ‘설문대할망’에 대한 다른 삽화-연륙교 및 오백 장군-가 ‘당캐할망’의 신화로 확대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추정은 그야말로 짐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어도 연구소의 한림화 씨에 따르면 하천리 흥매화 심방이 ‘당캐할망’에 대한

13) <표선의 백사장>,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임석계 전집9), 평민사, 1992, 203-204면.

이야기를 하면서 ‘표선리 토목공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할망의 영험’이며, ‘당캐할망’이 곧 ‘설문대할망’이라고 했다고 한다.¹⁴⁾ 표선리 홍두반 심방과 하천리 홍매화 심방의 관계를 가계나 무계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당캐할망’이 좌정한 해신당의 역사 등을 면밀히 고찰해야, 이러한 추정이 검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설문대할망’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본고에서 주목하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현재적 스토리텔링이 이러한 당신화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당신인 ‘당캐할망’, 즉 ‘설문대할망’은 성산과 한라산에 각각 한 발씩을 디디고 빨래를 하는 거인이며,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거나 백사장을 만들거나 하는 役事의 주인공이자, 한라산 오백장군의 母神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3. 구비설화의 해체와 재구성 방법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에 국한할 때, ‘설문대할망’을 제재로 하는 현대 스토리텔링은 구비 설화로 전승되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단편적 삽화들을 소재로 하여 그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해체와 재구성이 어떤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3.1.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결합

‘설문대할망’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의 영실 기암, 즉 ‘오백장군’의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모자 관계는 채록된 구비

14) 2009년 5월 16일 제주돌문화공원 주최 <탐라에서 신화를 말하다> 세미나. 위의 내용은 현 용준 선생에 대한 질의 중에 언급되었다.

설화에서 그 예가 많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필자가 검토한 자료집¹⁵⁾을 대상으로 할 때, ‘설문대할망’ 설화는 거의 대부분 ‘설문대할망’의 ‘거인’적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설문대할망’이 얼마나 거인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¹⁶⁾ 거인이어서 특정 지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¹⁷⁾ 거인이어서 가질 수 있었던 거대한 음문으로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¹⁸⁾ 연륙교를 놓아준다고 했으나 거대한 몸매에 맞는 옷을 짓기에는 옷감이 모자라 실패했다는 이야기 등이 모두 ‘설문대할망’의 거인성과 관련이 있다. ‘설문대할망’이 밭이 없는 샘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설문대할망’의 거인성과 관련이 된다. 보통 이런 삽화는 그 샘이 얼마나 깊은가를 설명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여전히 ‘설문대할망’의 거인성에 기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 모자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자료는 『남국의 전설』에 수록된 두 편 뿐이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수록된 이야기에 ‘설문대할망’이 ‘오백장군’의 어머니로 제시되어 있다. 두 이야기 모두에 예의 죽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술에 빠져죽은 이는 각각 다르다. <설문대할망>에서는 ‘설문대할망’의 ‘남편’이, <오백장군>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죽술에 빠져 죽는다.¹⁹⁾

다른 자료집을 참고하면 한라산 영실기암이 어머니가 빠져 죽은 죽을 먹은 아들들이 굳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는 ‘영실기암’과 관련되어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제주도전설지』에는 영실기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전하면서 가난한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가 빠져 죽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15) 검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진성기, 『제주도민담』, 제주민속연구소, 1976(1994 11판); 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 평민사, 1992;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16) 얼마나 키가 컸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장소를 동시에 디디고 서거나 빨래를 할 수 있었다거나, 한라산을 베고 누웠는데 다리가 바다 혹은 바다 건너 섬에 닿았다거나, 거대한 돌이 할망이 사용한 도구였다고거나 하는 삽화가 그것이다.

17) 흙을 날라 산을 만들었다거나, 산봉우리를 깎아 던져 오름을 만들었다거나, 배설물로 인해 지형이 생겼다는 삽화들이 이에 해당한다.

18) 이러한 이야기는 설문대할망의 짝인 설문대 하르방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19) 앞에서 살핀 ‘당개할망’ 신화에서 죽술에 빠져 죽은 이는 ‘아들’이다. ‘죽술에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이라는 이야기는 고정적 화소가 아닌 샘이다.

있다.²⁰⁾ 영실 오백 장군의 어머니가 설문대할망으로 전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추론이 성립되는 지점이다.

‘오백장군’과 ‘설문대할망’이 모자 관계로 설정되는 이야기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방증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듯하다. 예의 죽술 화소를 전하는 자료로 비교적 최근의 조사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구좌읍 종달리에서 채록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그것이다.²¹⁾ 그러나 제보자는 설문대할망이 두 오름에 각각 밭을 디디고 빨래를 했다는 삽화를 말한 다음 ‘그게 이 저 다른 디선 그런 말을 하더구만’이라는 전제를 달고 예의 그 죽술 삽화를 서술하고 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 ‘죽술’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다른 데에서 전해지는 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죽술에 빠져죽은 ‘설문대할망’ 삽화는 ‘설문대할망’이 ‘거인’이라는 일반적인 설화 인식과도 모순된다. 키가 큰 거인이라면 아무리 크고 깊은 솔이라 한들 빠져죽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죽술’ 화소를 매개로 하여 모자 관계로 설정하는 삽화는 구비전승의 설화 세계에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오늘날의 스토리텔링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예외 없이 모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구비 설화와 가장 큰 차이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오늘날의 여러 스토리텔링에서 공통적으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모자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3.2. 신화적 성격의 강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현대 스토리텔링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성, 즉 ‘설문대할망’을 神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20)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38-39면.

21) 종달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16, 2000, 367-368면.

‘설문대할망’을 포함한 여성 거인 설화가 여신 창조 신화의 후대형이라는 사실은 일찍이 여러 논자에 의해 지적되었다.²²⁾ ‘설문대할망’을 창조신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설문대할망’이 ‘거인’이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설문대할망계 고유문’에는 그 인과 관계가 전도되어 있다. ‘설문대할망’은 창조 행위를 하는 ‘거인’이므로 ‘창조신’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와는 달리,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만든 신이므로 거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이 직접적인 ‘창조’의 형태로만 한라산의 신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모자 관계가 주목된다. ‘오백장군’이란 무엇인가? 한라산 영실 계곡의 기암절벽을 사람들은 ‘오백장군’ 혹은 ‘오백나한’이라고 한다. ‘영실(靈室)’이라는 말에서 짐작되듯, ‘오백장군’이 거하고 있는 공간은 지극히 신성한 곳이다. ‘영실’이 신성하기에 ‘오백장군’이 신성한 것인지, ‘오백장군’이 신성하기에 ‘영실’이 신성한 것인지 묻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은 우문일터, 분명한 것은 ‘오백장군’이 聖山으로서의 한라산의 면모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상징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백장군’과 ‘설문대할망’이 모자 관계로 설정될 때,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의 신성한 ‘오백장군’을 낳은 어머니로서 그 신성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오백 명(정확히는 499명)의 아들들이 한라산 영실의 기암으로 굳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영실 기암 전설의 저 가난한 어머니가 바로 ‘설문대할망’이라는 스토리텔링은,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관련되는 신격임을 직접적인 ‘창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오백장군’과 ‘설문대할망’이 모자 관계로 설정된 이야기는 ‘설문대할망’을 신격화하려는 의도가 구현된 스토리텔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창조했으며 동시에 한라산신의 어머니이기도 한 중첩된 신격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둔다.

22) 강진욱,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등 참조.

3.3. 단편적 삽화의 체계화

‘설문대할망’을 소재로 하는 현대의 스토리텔링이 내용의 측면에서 ‘설문대할망’을 한라산과 관련되는 신격으로 형상화하는 특징이 있다면,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단편적 삽화 형태로 전해지는 구비 설화를 이어 붙여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꾸려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필요한 삽화만을 취하여 ‘설문대할망’이 어떤 신격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관련되는 신격이라는 화소는 공통적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백장군’과의 모자 관계, 한라산 창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음문을 이용한 사냥 및 어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삽화는 설화에서 창조 신격이 회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바, ‘설문대할망’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에서 이러한 삽화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²³⁾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단편적 삽화를 이어 붙여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개입되는 양상에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하는 서사 혹은 이야기의 특성상, ‘설문대할망’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시간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 ‘설문대할망’의 신격 특성의 변화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제 고유문>이나 <설문대할망제 본풀이>, ‘당케할망’에 대한 이야기 모두에서 시간의 흐름은 ‘설문대할망’의 신격적 특성의 변화와 동시에 전개된다. 특히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에서는 제주 섬의 창조에서부터 비롯되는 시간의 흐름이 ‘설문대할망’의 신격 변화(창조신-한라산신-당신)와 함께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에서 문무병이 ‘설문대할망’

23) 문무병의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에서는 음문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음문에서 나온 해산물’로 변형되어 있다. 회화화의 의미를 지녔던 삽화가, ‘설문대할망’의 창조신적 성격을 뜻하는 신성한 삽화로 변형되어 있음이 새삼 확인된다.

의 두 죽음을 모두 제시하고 그것이 ‘설문대할망’의 신으로서의 성격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스토리텔링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 잠재적 의식이라 할 만한 것을 적확하게 포착하여 표현한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설문대할망’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삽화와 ‘오백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결부시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신격 간 모자관계로 설정하는 삽화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배열한다. 이것은 지난 사건을 일정한 의도에 따라 시간 축 위에 재배열함으로써 구성되는 ‘역사’의 기술 방식과 닮아 있다. 요컨대 ‘설문대할망’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설문대할망’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조의 시대에서 한라산신의 시대로, 여성신의 시대에서 그 여성신의 아들 신들의 시대로 역사는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설문대할망’의 대모 신적 성격과 희생적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4. ‘설문대할망’의 현재적 의의

‘설문대할망’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구비 설화를 자료를 시간적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엮어 ‘설문대할망’을 한라산과 관련되는 신격으로 의미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거인’이라는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던 <설문대할망 ‘설화’>가, 직접 창조했던 아니면 한라산을 대표하는 ‘오백장군’의 어머니가 됐든, 결국 ‘한라산의 어머니’라는 특성을 지니는 신격에 대한 <설문대할망 ‘신화’>로 재편·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확장에는 분명 ‘제주돌문화공원’의 설립이 기여한 바가 크다. ‘주제라는 관념적 울타리를 갖는 공원’을 테마파크로 정의하는 일반적 규정에 의하면²⁴⁾ ‘제주돌문화공원’은 ‘돌문화’를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이다. 이러한 주제를 구현하는 데 적절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인 한라산 영실 기암과 한라산을 만들었다

24)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155면.

고 하는 ‘설문대할망’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공간 배치를 통해 구현된 것이 또 다른 형식의 매체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지역 사회에서 배척되거나 외면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설문대할망’에 대한 현재의 스토리텔링에서 파악되는 일반적 경향은 일찍이 진성기가 채록한 자료²⁵⁾에서도 발견된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모자관계로 연결하는 특징 뿐 아니라, 단편적 삽화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결하려는 의도(한라산 창조-남편의 죽음 및 아들들의 화석화-방황하면서 남긴 키가 크다는 일화-연륙교 이야기-죽음)가 간취된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 모자 관계로 설정된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서로 상관없는 ‘설문대할망’ 설화와 한라산 영실의 ‘오백장군’ 설화가 뒤섞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왜곡된 자료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료의 왜곡 여부가 아니라 왜곡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내용이 이후의 스토리텔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본다. 구비 설화의 삽화를 채용하면서도 구비 설화와는 그 초점이 다르게 맞추어지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향유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설문대할망’의 현재적 의미가 파악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텔링에서 ‘설문대할망’은 신화의 주인공으로 형상화되고, 그 신화의 내용이 창조에 국한되지 않고 한라산신 혹은 남성신과의 관계로 확장되며, 삽화의 시간적 배열을 통해 제주 역사가 그려진다. 이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현재의 스토리텔링이 제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담론으로서 창작·향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설문대할망’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주

25) 진성기, <설문대할망>,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22-23면. 1958년 안덕면 화순리에서 채록된 자료이다.

지하다시피 제주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진 것은 고을나와 양을나, 부을나와 그의 세 아내가 등장하는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가 존재함에도 ‘설문대할망’이 불러올려져 과거가 재구성된다는 것은, 을나로 대표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그’의 ‘이야기’로서의 히스토리history)가 ‘설문대할망’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그녀’의 ‘이야기’로서의 히스토리herstory)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공동체의 현재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미래로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의도 혹은 욕망에서 추동된 결과일 수 있다. 예컨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설문대할망제 고유문>에서 생략되었던 그 서두와 결미 부분을 보자.

오늘 여기, 저희 탐라의 후손(밑줄 필자)들이 모여와
다음과 같이 아뢰는 까닭은
설문대할망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이를 우리가 받들어 행하고 널리 펴고자 함입니다.

(…)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탐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밑줄 필자)

우리는 해와 달, 하늘과 땅, 사람, 나무와 꽃, 들짐승과 벌레들,
비와 바람, 눈보라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을 일깨워 주신 설문대할망,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설문대할망’을 시조로 하는 ‘후손’들의 공동체는 ‘탐라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탐라’의 시조이고, 그는 ‘탐라’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여기에서는 ‘사랑’-전해주는 인물이다. 우리-탐라국-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점층적 확대를 통해, ‘탐라’가 대한민국의 하위 층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명확한바, 이러한 주변적 공동체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무의식적 질문에 대한 답이 ‘설문대할망’을 통해 탐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자면, ‘설문대할망’을 구심점으로 형성해야 할 ‘탐라’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탐색이 ‘설문대할망’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지니는 현재적 의의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설문대할망’의 재발견은, ‘설문대할망’을 상징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재구성이며 그것에서 미래로 이어질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탐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설문대할망’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제주도 상황은 구비 설화가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언어 외의 매체를 통해 되살아나는 역동적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장을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포착하고, 현재의 스토리텔링의 구비 설화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는지, 또 그것을 통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서 그 생명력을 지속해 나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서두에서 제시한 애니메이션이나 체전의 심볼에 구현된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오페라 <백록담> 등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설문대할망’의 현재적 의미를 포착함으로써 왜 하필 ‘설문대할망’이 부각되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점, ‘설문대할망’과 유사한 여성 거인들에 대한 여타 지역의 스토리텔링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본고의 한계로 자인하면서,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자료>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임석재전집9), 평민사, 1992.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 편, 『2008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설문대할망제』, 2008.
제주돌문화공원 홈페이지 <http://www.jejustonepark.com>
「중달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16, 백록어문학회, 2000.
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_____, 『제주도민담』, 제주민속연구소, 1976.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논저>

- 강진욱,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김의숙·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국문학보』10,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90.
전경수, 탐라 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세계신화의 이해』(임봉길 편), 소화, 2009.
조현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설문대할망 신화 재조명』(<탐라에서 신화를 말하다> 세미나 자료집), 제주돌문화공원, 2009.
최혜실, 「문학작품의 테마파크화 과정 연구」, 『어문연구』32, 20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_____,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Folktales and Newly Storytellings on Grandmother *Seolmundae* in Jeju Island

Jeong Jin-hee

This research is a study of tales on *Seolmundae Halmang*(Grandmother *Seolmundae*) in Jeju Island. It aim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newly storytellings of *Seolmundae Halmang* and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oral' folktales are turned into 'non-oral' stories.

Seolmundae Halmang is a heroine of the giantess folktales of Jeju. Nowadays, stories about her are made into not only oral tales but also non-oral things like as a theme park, an opera, and animations. In this study, I have called them newly storytellings of *Seolmundae Halmang* and examined the storytellings of Jeju Stone Park mainly.

The first characteristics of newly storytellings about *Seolmundae Halmang* is that they have been made using oral folktales of not only *Seolmundae Halmang* but also *500 Generals* which originated from Yeongsil, Mt. Halla. In newly storytellings, *Seolmundae Halmang* is the mother of *500 Generals*, who sacrifices herself for her sons. Next, in the newly storytellings *Seolmundae Halmang* is characterized as goddess. She is the goddess of creation and the Holy one who is the mother of mountain gods'. Finally, the newly storytellings arrange episodes of folktale in lineable order. *Seolmundae Halmang* had created Jeju and become Mt. Halls's goddess. And she abdicated the position of mountain goddess in favour of her s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newly storytellings of *Seolmundae Halmang* are discourses on identity of Jeju. The narrative of *Seolmundae Halmang* has been made as the 'herstory' of Jeju, and she has been regarded

as the icon of worth and vision which Jeju must look for better future.

key words: *Seolmundae Halmang*, giantess, folktale, storytelling, myth, discourse, Jeju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